

테 마 진 단

◆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 손익 변화와 대응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서성민 연구원

1. 서론

주가하락, 금리상승 등 금융위기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은 보장성보험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이익확보가 중요해짐. 재무건전성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위험률차이익률의 변화 양상,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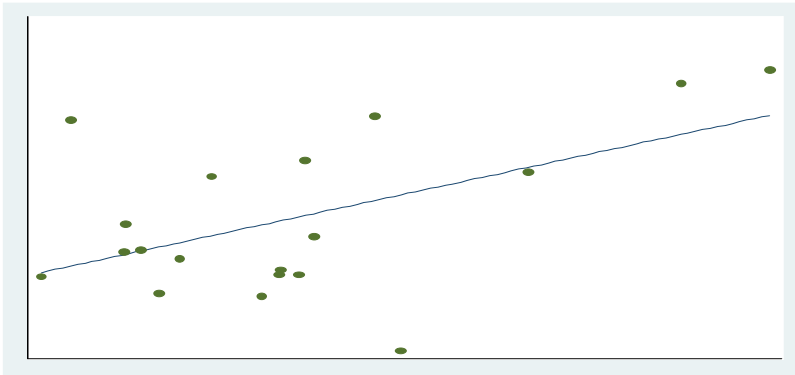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신계약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등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신계약 부문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FY2008 2분기(7~9월) 보험손익은 1분기(4~6월) 대비 77.6%나 감소하였음(1분기: 1조 7,734억원 → 2분기: 3,964억원).
 -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손익도 전분기 대비 13.0% 하락함(1분기: 3조 2,175억원 → 2분기: 2조 7,997억원).
- 보험회사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항하여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 언더라이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위험률차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2008년 9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과 위험률차이익률¹⁾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회사들의 위험률차이익률 평균은 8.4% 수준인데 비해,

1) 위험률차이익률은 “1-사망보험금/위험보험료”으로 산출함.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관련 지급준비금 증감의 직전 1년간 합계 금액임.

테마진단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회사들의 평균 위험률차익률은 13.6%로 나타나, 두 그룹간 격차가 5.2%p 발생함.

〈그림 1〉 위험률차익률과 지급여력비율(2008.9)



주 : x축은 위험률차익률, y축이 지급여력비율임.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회사별 경영공시 자료

-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위험률 부문에서의 이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에서의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8년 위험률차익 부문의 이익 규모는 4,580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위험률차익률도 43% 수준으로 낮아졌음.
- 본 고에서는 지난 7년(2002~2008년)간 진행된 위험률차익률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 후, 향후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²⁾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서 저축성·투자형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위험보험료 규모가 미미한 3사(하나HSBC, 신한SH&C, KB)를 제외한 19개사로 한정함³⁾.

2) <http://fisis.fss.or.kr>

3)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2008년 4월 1일자로 LIG생명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상품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보다는 중소형사의 특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 따라서, 중소형사로 분류함.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형사(3개사), 중소형사(8개사) 및 외국사(8개사) 3개 그룹으로 구분함.
- 분석 기준은 전년 10월부터当年 9월까지를 1년으로 산정함(예: 2007년 10월~2008년 9월 자료를 2008년 데이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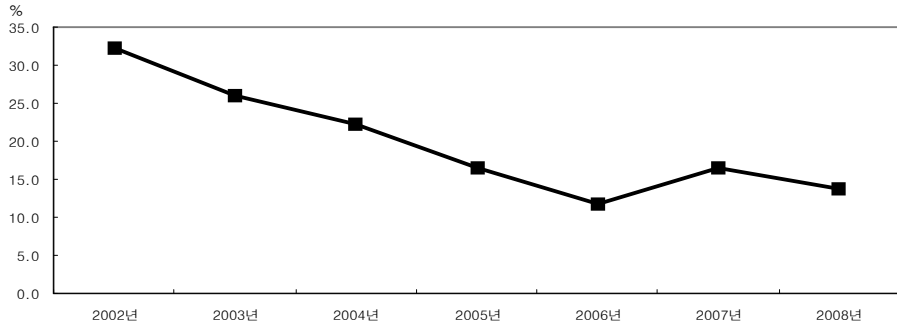
2. 위험률차익률의 변화 양상

위험률차익률은 지난 6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감소 폭이 두드러짐. 2008년 9월 기준 10%대 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위험률차익의 절대 규모도 2002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동시에 2005년 이후에는 회사간 위험률차익률 격차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차익률 수준은 2002년에는 30% 수준에 달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20%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2005년 이후에는 다시 10%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짐.
-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2006년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매우 컸으며, 2007년에는 상승으로 반등되었음.
- 위험률차익률이 2007년에 상승한 이유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위험률차익 관리를 위해 지급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며, 제5회경험생명표의 사용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⁴⁾.
- 위험률차익률의 절대 수준은 분석기간 동안 일관되게 외국사가 가장 높았으나, 외국사와 대형사·중소형사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음.
-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2002~2005년에는 중소형사가 더 높았으나, 2006~2008년에는 대형사가 더 높아짐.

4) 2006년 4월부터 제5회경험생명표를 적용하였는데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6~9% 하락한 반면,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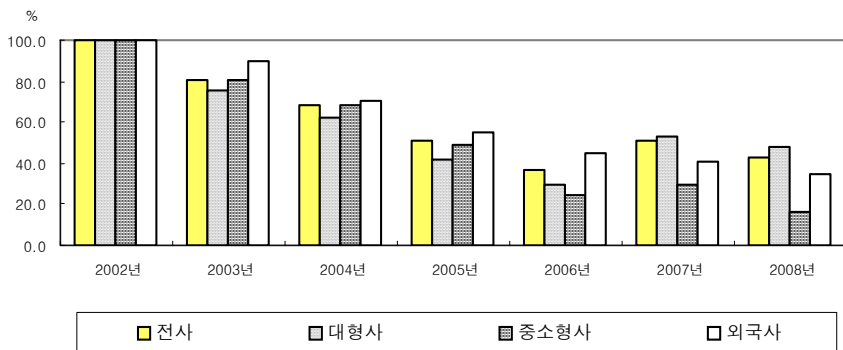
〈그림 2〉 위험률차익률 변화 추이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분석기간 중 위험률차익률이 가장 양호했던 2002년 대비 상대적 수준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악화현상이 두드러짐(<그림 3> 참조).
- 2002년 대비 2008년 위험률차익률 수준은 중소형사가 16.8%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외국사도 34.4% 수준으로 낮아짐.
- 반면, 대형사의 경우에는 48.4% 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위험률차익률 지수 변화(2002년 기준)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5) 대형사의 경우에도 2006년 실적이 2002년 대비 30.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언더라이팅 강화, 지급심사시스템 변경 등의 방식을 통해 위험률차익 부문을 관리한 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 다소 개선되었음.

□ 위험률차익률의 하락과 동시에 위험률차익의 절대 규모도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전사의 위험률차익 규모는 2002년 대비 71.4%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중소형사는 47.2% 수준으로 낮아짐.
- 외국사의 경우 위험률차익률이 2002년 대비 34.4%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률차익의 절대규모는 2003~2007년에 증가하였으며, 2008년 들어 92% 수준으로 낮아짐.

〈표 1〉 위험률차익 규모의 상대지수

(단위: %)

	전사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2002	100.0	100.0	100.0	100.0
2003	88.0	83.3	85.0	113.7
2004	82.7	74.5	81.4	123.4
2005	68.3	56.9	66.1	124.6
2006	54.0	41.2	43.6	124.8
2007	80.7	75.7	62.3	120.6
2008	71.4	71.4	47.2	92.8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험률차익률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생명보험회사들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임.

-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표준편차가 2003년 19.3%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2008년에는 14.4% 수준으로 낮아짐⁶⁾.
- 2002~2004년에는 위험률차익률의 절대수준도 양호하였으며, 종신보험 시장을 선점한 일부 회사들이 보유한 우량계약의 질적 특성, 언더라이팅 능력에 따라 회사별 격차도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05~2008년에는 위험률차익률의 절대수준도 낮아졌으며, 종신보험 시장의 보편화에 따라 점차 보유계약의 질적 특성이 희석되고, 일부 담보에서의 발생

6) 위험률차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변동됨(2002년: 15.6% → 2003년: 19.3% → 2004년: 17.2% → 2005년: 16.6% → 2006년: 15.8% → 2007년: 14.3% → 2008년: 14.4%).

테마진단

률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별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위험률차익률의 구간별 회사 분포를 살펴보면, 점차 위험률차익률이 낮은 구간으로 회사들이 이동하고 있음.
- 손실이 발생하는 0% 이하 구간에는 2003~2005년까지는 1개사만 분포하였으나, 2006~2007년에는 2개사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4개사로 증가함.
- 손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0~10% 구간에는 2005년 1개사에서 2006년 이후에는 5~6개사가 분포하고 있음.
- 가장 많은 회사들이 전사 평균치가 속한 10~20% 구간에 분포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양호한 20% 이상 구간에 속한 회사들은 2002~2004년 10개사 이상이었으나, 2008년에는 3개사로 급감하였음.

〈표 2〉 위험률차익률 구간별 회사 분포

(단위: 개)

구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	0	1	1	1	2	2	4
0~10%	0	0	0	1	5	6	5
10~20%	0	4	6	10	9	7	7
20~30%	8	6	6	3	0	2	1
30%~	11	8	6	4	3	2	2
전사	19	19	19	19	19	19	19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변화 원인

위험률차익률이 하락한 이유는 보장성 상품 비중이 감소하고 저축성·투자형 상품 비중이 증가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 보장성 상품의 급부 중 사망담보가 감소하고 생존담보가 증가한 담보 특성의 변화, 기여도가 높은 중신보험의 선택효과 소진, 홈쇼핑·TM과 같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가.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

- 위험률차익률이 낮아진 요인으로서 보장성보험 비중이 낮아지고 저축성·투자형보험 중심으로 이동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지적할 수 있음.
 - 위험보험료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장성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9.2%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41.3%로 낮아짐.
 - 특히 사망률의 개선현상으로 인해 위험률차익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종신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이 2004년 21.4%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7.3%로 낮아짐.
 - 그 결과, 수입보험료 대비 위험보험료 비중도 2005년 11.8%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1.1% 수준으로 낮아짐.
- 보장성보험 비중이 감소하는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 2006년 이후에는 위험보험료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하회함.
 - 2006~2008년 연평균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0.1%인데 비해, 위험보험료 증가율은 7.7% 수준임.
 - 상대적으로 위험보험료 성장세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보험금 증가 속도가 위험보험료 증가 속도를 추월하여 이익률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표 3〉 상품포트폴리오 변화(전사)

(단위: 억원, %)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위험보험료	수입보험료	보장성	종신	위험보험료
2002	210,835	73,708	49,471(-)	439,768(-)	47.9	16.8	11.2
2003	232,683	94,170	54,329(9.8)	488,789(11.1)	47.6	19.3	11.1
2004	255,134	110,883	59,698(9.9)	519,009(6.2)	49.2	21.4	11.5
2005	275,810	118,216	66,090(10.7)	560,348(8.0)	49.2	21.1	11.8
2006	288,986	116,819	72,946(10.4)	638,804(14.0)	45.2	18.3	11.4
2007	302,531	121,316	77,657(6.5)	686,265(7.4)	44.1	17.7	11.3
2008	308,351	129,347	82,489(6.2)	746,155(8.7)	41.3	17.3	11.1

주 : 1) 2002년 데이터의 경우 1~9월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2)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특히 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중소형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보장성보험 비중이 2005년에 50.9%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37.7% 수준으로 낮아짐.
- 수입보험료 대비 종신보험의 비중도 2005년 19.9%에서 2008년에는 13.2%로 낮아졌으며, 그 결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0.6%에서 2008년에는 8.0%로 낮아짐.

〈표 4〉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중소형사)

(단위: 억원, %)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위험보험료	수입보험료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위험보험료
2002	34,306	10,175	6,701	70,743	48.5	14.4	12.6
2003	32,820	11,926	7,041	67,658	48.5	17.6	10.4
2004	37,340	14,031	8,072	76,658	48.7	18.3	10.5
2005	43,753	17,086	9,117	85,940	50.9	19.9	10.6
2006	49,492	18,176	10,410	102,267	48.4	17.8	10.2
2007	55,747	19,705	11,678	127,404	43.8	15.5	9.2
2008	60,268	21,184	12,792	159,976	37.7	13.2	8.0

주 : 2002년의 경우 2002년 1~9월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외국사의 경우에도 중소형사와 유사하게 보장성보험 특히, 종신보험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
- 종신보험의 비중은 2003년 36.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22.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위험보험료 비중도 9% 수준으로 낮아짐.

〈표 5〉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외국사)

(단위: 억원, %)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위험보험료	수입보험료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위험보험료
2002	26,412	15,870	5,162	47,147	56.0	33.7	21.9
2003	32,342	20,626	6,691	57,029	56.7	36.2	11.7
2004	38,971	25,828	8,088	75,411	51.7	34.3	10.7
2005	45,322	30,741	9,709	92,674	48.9	33.2	10.5
2006	50,271	31,650	12,000	118,761	42.3	26.7	10.1
2007	54,995	33,597	13,003	141,119	39.0	23.8	9.2
2008	59,997	36,330	14,903	165,003	36.4	22.0	9.0

주 : 2002년의 경우 2002년 1~9월 자료를 연간화한 것임.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생존담보의 비중 증대

□ 위험보험료는 담보 유형에 따라 사망보장과 생존보장으로 구성됨.

- 사망담보(mortality risk)는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과 관련되며, 생존담보(morbidity risk)는 상해, 진단·수술·입원 관련 보장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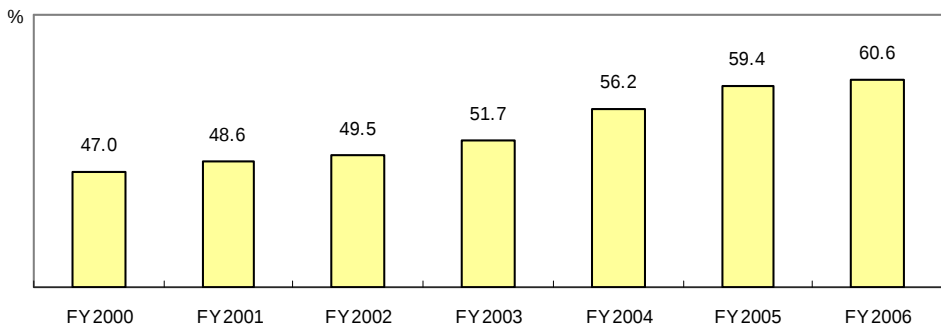
□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해 사망담보 관련 위험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생존담보 관련 위험률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 생존담보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보건정책의 변화가, 건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증대 및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특정질환의 조기발견이 증가한 사회 분위기와 관련됨.

- 7) 1999년부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말함. 검진항목이 초기 3개에서 점차 5개로 확대되었으며, 검진대상도 하위 20% 저소득층에서 50% 저소득층으로 확대됨.

-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 건수는 매년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도 1990년대 중반 41.2%에서 2005년에는 52.2%로 크게 높아짐⁸⁾.
-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고, 발병 후 생존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생존담보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크게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2001~2004년 생존담보 특약을 부가하여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존담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험보험료 중 생존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0 47.0% 수준이었으나, FY2006에는 60.6% 수준으로 높아짐.
- FY2000~FY2006 동안 생존담보 부문의 위험보험료가 사망담보 부문의 위험보험료 증가속도를 추월하여 생존담보 비중이 60%를 초과한 것임.

〈그림 4〉 위험보험료 중 생존담보 비중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 생존급부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서의 위험률차익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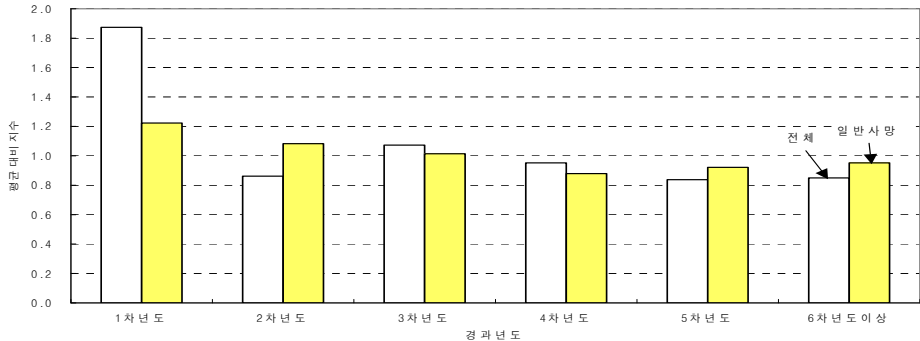
8)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남녀 모두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는 3명 가운데 1명, 여자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YTN 2008년 10월 15일자 보도, <http://www.ytn.co.kr>).

- 생존담보 부문에서는 FY2003부터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FY2005와 FY2006 들어 더욱 확대됨.

다. 종신보험의 선택효과 소진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존재할 경우 보험가입 초기 3년 정도는 손해율이 양호한 선택효과(initial selection effect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 위험률차익률 대비 1차년도의 위험률차익률이 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택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신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위험률차익률의 상대지수가 1차년도 1.22, 2차년도 1.08, 3차년도 1.01로 나타나 특히 1차년도 위험률차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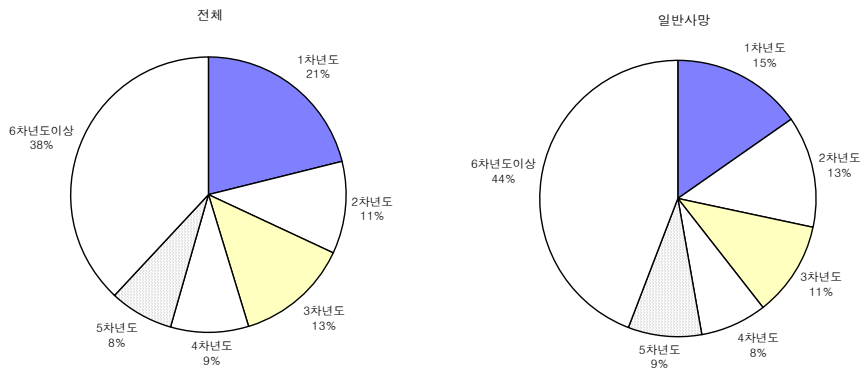
〈그림 5〉 경과년도별 위험률차익률의 상대지수



주 : 보험년도 전체의 위험률차익률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지수임.
자료 : 보험개발원

- 1차년도의 위험률차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과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4차년도 이후에는 사고발생률의 자연증가에 따라 평균으로 수렴하게 됨.
- 전체 보장급부(일반사망, 재해사망, 상해 및 입원 기타)에 대한 위험률차익 규모 중 1차년도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달하며,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1차년도 이익이 15.3%, 2차년도 이익이 13.0%를 차지함.

〈그림 6〉 경과년도별 위험률차익의 비중



주 : 보험년도 전체의 위험률차익에서 각 보험년도의 위험률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보험개발원

- 종신보험은 1990년대 말부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4년 최고점을 계기로 성장 폭이 크게 둔화되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계약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 수는 2004년 2,362천건에서 2006년에는 2,204천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종신보험과 보장내역이 유사한 치명적질병보험(CI)을 포함해도 4,227천건에서 3,978천건으로 감소하였음.

〈표 6〉 신계약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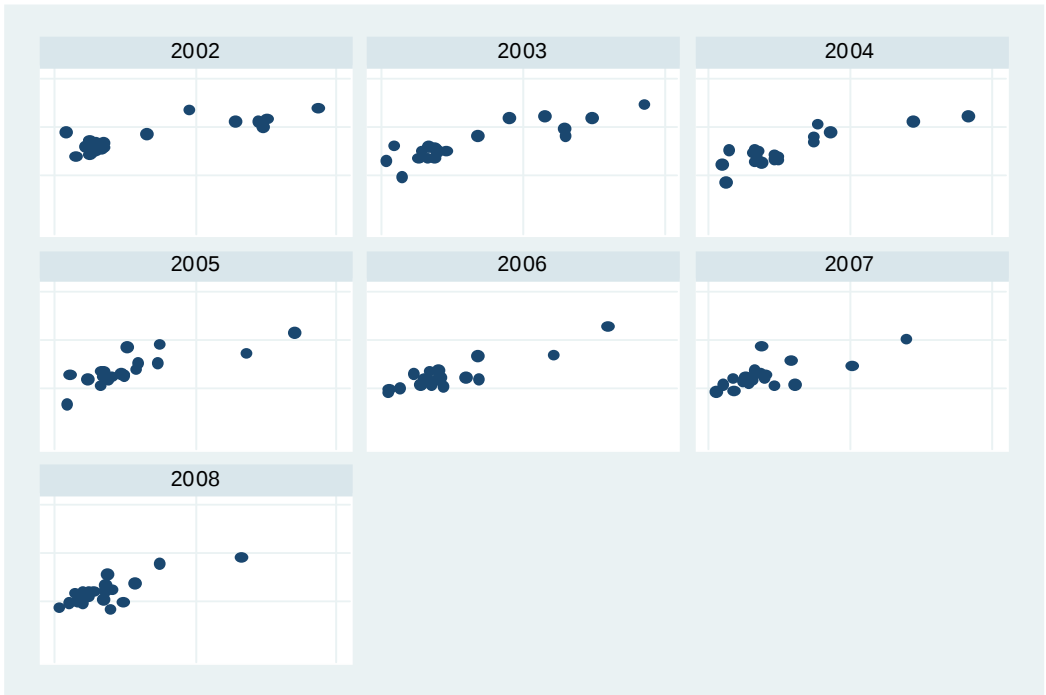
(단위: 천건, %)

	신계약 건 수			증감률	
	2004	2005	2006	2005	2006
종신	2,362	2,058	2,204	-12.9	7.1
치명적질병(CI)	1,865	1,792	1,774	-3.9	-1.0
종신+CI	4,227	3,850	3,978	-8.9	3.3

자료 : 보험개발원

-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유입된 양질의 종신보험에서 나타나는 선택효과가 소진되고, 2005년 이후 위험률차익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종신보험의 신계약 유입이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률차익률이 하락하고 위험률차익 규모도 감소하고 있음.
- <그림 7>은 종신보험 비중과 위험률차익률 수준간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회사들의 분포가 종신보험 비중과 위험률차익률 수준이 높은 우상방에서 점차 종신보험 비중과 위험률차익률 수준이 낮은 좌하방으로 이동하고 있음.

<그림 7> 종신보험 비중과 위험률차익률 수준



주 : x축은 종신보험 비중, y축이 위험률차익률 수준임.

라. 비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

- 홈쇼핑, TM, CM과 같은 비대면채널은 수익정보다는 매출 측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테마진단

- 엄격한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택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역선택의 우려가 높음.
- 상품유형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보험, 건강보험 등 생존급부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 비대면채널 활용도는 기존 대면채널과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회사별로 상이한데,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비대면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형사와 외국사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중소형사의 경우 2003년에 4.0%에서 2005년에는 10.3%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다시 2008년에는 12.4% 수준으로 높아짐.
- 외국사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절대 비중이 12~14% 수준으로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대형사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2003년 2.61%에서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0.86%에 불과함.

〈표 7〉 비대면채널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구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사	3.19	2.28	2.83	3.24	2.98	3.29
대형사	2.61	1.69	0.81	0.66	0.43	0.86
중소형사	4.01	2.67	10.34	12.20	11.87	12.38
외국사	12.72	12.46	13.35	14.44	13.83	11.15

주 : 일반계정 기준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http://www.klia.or.kr/>)

- 2005년 이후 홈쇼핑을 통한 건강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홈쇼핑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위험률차익률이 양호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전체 초회보험료 중 홈쇼핑 채널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주로 중소형사임(전사: 0.53%, 대형사: 0.13%, 중소형사: 2.08%, 외국사: 0.39%).
- 홈쇼핑 채널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4개사 중 2개사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위험률차익률 평균은 2.0%에 불과함.

<그림 8> 홈쇼핑채널 의존도(초회보험료 기준)와 위험률차익률 수준



주 : 1) x축은 초회보험료 대비 홈쇼핑채널 비중, y축이 위험률차익률 수준임.
 2) 가로선은 위험률차익률 수준이 “0” 을 의미함.
 3) 일반계정 기준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http://www.klia.or.kr/>)

- 비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 구간별로 회사 분포를 살펴보면, 5% 미만 구간에서 점차 5~10%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음.
- 5% 미만인 회사는 2003년 15개사에서 2008년에는 10개사로 감소한 반면, 5~10% 구간의 회사는 2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하였음.
- 초회보험료 중 비대면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회사도 3~5개사로 많아짐.

〈표 8〉 비대면채널 비중 구간별 회사 분포

(단위: 개)

구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	15	17	11	9	9	10
5~10%	2	1	4	5	5	6
10~15%	1	0	1	3	2	0
15~20%	0	0	2	0	0	1
20%~	1	1	1	2	3	2
전사	19	19	19	19	19	19

자료 : 생명보험협회

4. 대응과제

생존담보의 비중이 증대되고, 종신보험의 선택효과가 소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질병의 조기발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험률차익률이 낮아지고 있음. 이런 사회분위기로 인해 향후에도 위험률차익률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험률차익률에 대한 전략적 목표 수준의 설정, 보장기간의 단기화, 중복보장을 방지하는 급부설계, 전략적 판매채널의 활용이 필요함.

가. 전략적 목표 수준의 설정

- ☐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 국가의 보건정책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이 보편화됨에 따라 질병의 조기진단이 가능해지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대되고 있음.
 - 위험률차 부분의 손익이 악화되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양호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실현가능한 목표 위험률차익률 수준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적인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등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전략적 목표 수준은 자사의 위험률차익 관련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 사전적으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도 지급심사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위험률차익 부문이 개선되는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 매출(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하는 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위험률차익뿐만 아니라 사업비차익 등 개별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손익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후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내야 함.

나. 상품기간의 단기화

- 생존담보 관련 위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위험률을 보증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음
- 보험회사들이 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기간을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⁹⁾ 및 자동갱신(renewable)¹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 급부설계의 변경

- 위험률차익률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상품설계 측면에서 중복보장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 암 진단, 수술, 입원 등 동일한 생존급부에 대해 주계약과 특약에서 중복으로 보장할 경우 보험사고 1건 발생시 보험금을 중복해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손실 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높은 정액급부는 역선택 및 보험사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망률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담보를 생존담보와 적절히 결합해서 생존담보 부문의 발생률 증가 현상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함.

9) 보험가입 후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할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
 10) 일정한 보험기간(1, 3,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험률 및 손해율을 다시 산정한 보험료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

라. 전략적 판매채널 활용

- 보험사고 발생률 측면에서 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계약의 사고발생률이 설계사와 같은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계약보다 1.56배(수술·암진단)~2.10배(입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사고발생률(2007)

(단위: %)

사망	입원	수술	암진단
162.9	210.0	156.7	156.4

자료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계약속성 및 리스크 분석과 상품운용 전략』, CEO-Report, 2008.12.

- 전속대면채널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판단할 때 비대면채널의 이점은 존재하지만, 매출 측면이 아닌 손익관리 측면에서는 높은 손해율 발생이라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비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판매채널과 보험사고 발생간 상관관계가 낮은 계층 및 급부를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입원·수술·암진단 담보의 경우 47세 이상 중장년계층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을 표적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0〉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사고발생률(연령별·담보별, 2007)

(단위: %)

	32세	37세	42세	47세	52세	57세
입원 담보	254.4	246.1	227.2	191.8	169.8	142.1
수술 담보	169.5	184.1	158.4	145.0	118.0	118.0
암진단 담보	154.7	144.2	139.3	115.1	138.0	128.9

자료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계약속성 및 리스크 분석과 상품운용 전략』, CEO-Report, 2008.12.